

201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 기도주간
평화 기도회 및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보고서

한국 교회 성지순례의 문제점과 대안 성지순례 방안 모색

- 일시 : 2013년 5월 28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강당



주최 :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NCK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문밖교회, 성서한국, 얼굴있는거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향린교회

주관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 목차 ▶

□ 모시는 글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순서 -----	4
□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보고서	
▪ 주제 발표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 - 최창모 (건국대학교 교수, 중동연구소 소장) -----	6
▪ 토론	
- 『‘샬롬’이 없는 종교적 방문에서, 대안적 평화순례로의 전환을 꿈꾼다』 구교형 (성서한국 사무총장) -----	16
- 장벽이 있는 곳, 평화가 없기에 가장 아픈 곳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위원장) -----	19
- 팔레스타인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만남 유시경 (대한성공회 신부, NCC 국제위원) -----	22
- 대안 성지순례를 고민함 최소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	27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의 논찬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	29
▪ 전체토론 속기록 -----	33
□ 별첨 자료 :	
▪ 부록 :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의 요청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응답 - 생명평화의 대안성지순례를 생각한다. 이윤희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	38
▪ 부록 : 한국ATG 추진 제안서 -----	47
▪ 전체 일정 안내 -----	49
▪ 참석자 명단 -----	50
▪ 행사 사진 -----	51

201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및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한국교회 성지순례의 문제점과 대안 성지순례 방안 모색

일시_ 2013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장소_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

모시는 글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와서 보라!(Come and See!)” 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대안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 세계에서 6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으로서 지금의 성지순례는 과연 충분한지 질문하려 합니다.

성지순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성지순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평화를 일구어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2:00 - 2:20	대표자 회의 활동보고 및 협의
2:20 - 3:30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3:00 - 5:30	심포지엄 〈한국교회 성지순례의 문제점과 대안 성지순례 방안 모색〉 사회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3:00 - 3:30	주제 발표 평화의 길, 대안 성지순례 발표자 최창모 교수 건국대학교 교수, 중동연구소 소장 · 성지순례의 현황과 문제점 · 대안 성지순례란 무엇인가? 방안 · 대안 성지순례의 성서, 신학적 검토
3:30 - 4:30	토론 · 구교형 성서한국 사무총장 · 유시경 NCC 국제위원, 대한성공회 신부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위원장, 세계YWCA실행위원 · 최소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4:30 - 5:30	질의 응답 및 토론



주최_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 단체_ NCK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문밖교회 성서한국 얼굴있는거레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향린교회
문의_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02.754.7893

□ 모시는 글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와서 보라!(Come and See!)” 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대안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 세계에서 6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둘러보는 식의 지금의 성지순례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 으로서
과연 충분한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지순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성지순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는 WCC가 지정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기도주간’ 입니다.

그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평화를 일구어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쟁과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기초한 전쟁과 폭력은 결코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비군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만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인도 - 최수산나 부장 (한국YWCA연합회)

예배에의 부름 ----- 인도자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저희가 서로 화해하도록 해주시며,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셨나이다. 날마다 저희 삶 안으로 들어오시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때문에 존엄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 연대하도록 저희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전쟁과 폭력을 막아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저희의 나약함으로 당신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외면치 말게 하소서.

찬송가 ----- 주는 평화 ----- 다함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말씀묵상 ----- 야고보서 2:12~17 ----- 이은영 청년(기독교대한감리회)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상 / 노래 목상 ----- 주여 이제는 여기에 ----- 다함께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평화회복을 위한 기도

① [갈등회복을 위한 기도]----- 조상식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응답 ----- 다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기도] ----- 이상훈 부제
(대한성공회,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응답 ----- 다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③ [팔레스타인 평화 회복을 위한 기도]----- 신연식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응답 ----- 다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 다함께

선의를 하나님,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였습니다.
당신의 뜻은, 평화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비취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운으로, 인류가 평화와 정의를 이 땅의 나라들에 가져오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통치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개인의 안위 보다는 공동의 선을, 자신의 영광 대신 당신의 정의를.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과 조화가 우리 삶속에 늘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이 행복을 알게 하시며,
모두가 형제와 자매로 살게 하시어, 당신 안에서 만물이 기뻐하게 하소서.
다양성 속에 하나 된 우리는 당신의 무한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

최창모 (건국대학교 교수, 중동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가족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듯,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가족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며,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이렇듯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아픈 두 곳 - 한반도와 팔레스타인이다. 반평생 운명처럼 타원의 두 중심, 두 지역을 오가며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빛은 갠 심정으로, 참 좋은 분들과 생각과 뜻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유학 중 1987년 12월, 예루살렘에서 23번 버스를 타고 히브리대학이 있는 Mt.Scopus에서 Old City로 가던 중 팔레스타인 청년이 버스에 던진 돌에 맞았다. 타고 있던 옆자리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고, 그 옆에 앉아 있던 내 눈에 유리파편이 들어가 피를 흘렸다. ‘인티파다’라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은 내가 팔레스타인들의 삶의 현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한쪽에 좋은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는 나쁜 것이 되는 것이라면 애당초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논의는 불가능한 것이라. 한쪽의 건국일이 다른 한쪽에서는 ‘나크바’(재앙)의 날이 되고, 한쪽이 오랜 세월 타지를 헤매다가 고토(古土)로 돌아온 ‘귀향’이 다른 한쪽은 터전을 이루고 살던 고향에서 쫓겨난 ‘난민’이 되고, 한쪽은 다른 한쪽을 ‘테러리스트’라 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독립투쟁’으로 믿는다. 똑같은 높이의 담장을 두고 한쪽은 ‘보안장벽’이라 일컫고, 다른 한쪽은 ‘분리장벽’이라 부른다. 이는 단순히 ‘관점과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운명의 차이’라 부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쪽의 지배가 다른 쪽은 종속이 되는 곳, 애당초 거기에서는 공존과 평화, 모두에게 좋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세 유일신 종교의 요람이었고 온 인류의 평화와 우애, 개방과 사랑의 가르침의 샘으로 여겨졌던 팔레스타인지역이 이제는 전쟁과 증오, 파괴와 반계몽적 행위의 무덤이 되어 버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 속에서 타지를 보고, 타자 속에서 타자와 더불어 자신을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해방,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동력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II.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반	영토	22,072 Km ²	6,020 Km ²
	인구	8,002,300 명	4,100,000 명 (가자지구 250만 / 서안지구 160만)
	GDP	\$ 248,719 billion (세계 46위)	\$ 4.63 billion
		\$ 32,312 (세계 26위)	\$ 2,900
	Gini	39.2 (medium) cf. 대한민국 31.0	“ ? ”
실업률	8.4%	25%	
키워드로 읽는 역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몽주의 2.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3. 시온주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LO 2. 인티파다 3. 하마스 	
국가 형성과 민족 정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와 국가 - 신학적 딜레마 2. 이민과 귀향법 3. 다원주의 사회구조와 갈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크바와 자기 정체성 2. 난민 3. 시민권과 귀향의 권리 	
정치와 거버넌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문화 - 정치구조와 노동조합 2.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네트워크 3. NGO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령과 유대인 정착촌 2. 평화협정 - 캠프데이비드, 오슬로 협정 등 3. 분리장벽 4. NGOs 	
종교와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대교 2. 관습 3. 달력과 축제 <p>소수 종파들 - 메시아닉 유대인, 팔레스타인 기독교, 두르즈, 베두인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슬람과 통과 의례 2. 할랄과 하람 	
국제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관계 - 미국, EU 등 2.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3.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정책 4. 이스라엘의 대헤즈볼라 정책 5. 한국과 이스라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2.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향한 외교 3. 한국과 팔레스타인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대인 경제 오디세이 2. 경제구조와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조경제’ 2. 이스라엘 경제의 ‘한 부분’에 불과 	

	3. 키부츠와 모샤브 4. 이스라엘의 ‘창조경제’	— 점령자의 화폐 사용(통화정책 종속) — 사실상의 경제봉쇄: 수출 수입 이스라엘 경우 — 수자원, 전기 등 의존
교육과 언어	1. 언어와 교육 - 문학 2. 문화와 예술 - 과학 기술 3. 미디어와 여론	1. 교육 2. 저항문학 3. 미디어와 여론 4. 예술과 박물관
한국과 미래협력	1. 대중동의회교의 회고와 전망 2. 통상관계 3. 한인사회와 유대인 이미지	1.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한 입장 2. 무상원조 3. 이미지

III. 성지순례란 무엇인가?

■ 신앙고백과 삶의 실천으로서의 성지순례

어떻게 나의 특수한 신앙 체험과 고백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학교에서 배운 보편적인 지식을 나의 특수한 체험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 성지답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성지답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던 성서를 성서의 현장에 서서 재해석하고, 개인적인 성서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씨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지답사는 보편적인 학문의 연장이자 개인적인 특수한 체험 여행이다.

아울러 오늘날 성지순례란 ‘과거를 찾는 여행’이자 곧 ‘현재를 통해 과거를 해석하는 여행’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고, 현재의 창을 통해 과거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성지 이해와 신앙체험을 실천적으로 현재화하는 행위이자 고백인 것이다.

■ 성지순례 ≠ 성지답사 ≠ 성서답사 ≠ 현장답사 ≠ Study Tou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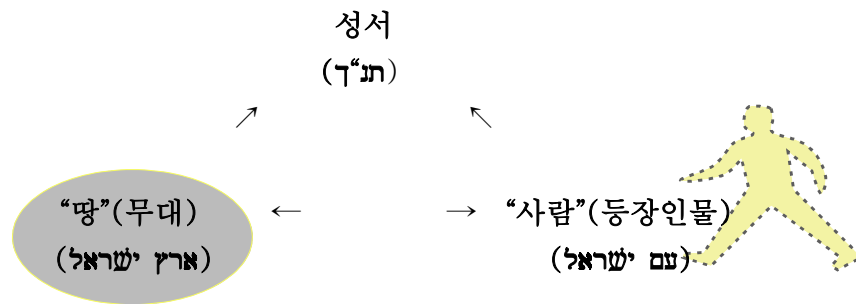
성지순례는 성지답사가 아니다.

탐구(성지답사)에만 치우치면 너무 건조하고, 사색에만 몰두하게 되면 성지 순례가 되기 쉽다. 답사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는 기쁨이요, 하나는 맛있는 향토음식을 먹는 기쁨이다. 특히 성지답사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란 기쁨을 넘는 감격이다. 성지답사는 성서답사다. 성서답사를 올바르게 가치 있게 하자면, 성서의 무대가 되는 그 땅의 성격, 즉 자연(自然) 지리를 알아야 하고, 그 땅의 역사, 즉 역사(歷史) 지리를 알아야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즉 인문(人文) 지리를 알아야 한다.

성서답사란 성서적 과거를 답사하는 행위가 아니다.

성지답사를 마치고도 성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반 여행과 다를 바가 없다. 성지답사를 마치고도 현재의 삶과 사회의 거듭남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무익한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타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진정 무엇인가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이다. 수 없이 만나게 될 스쳐지나가는 풍광과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답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낯선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많은 다른 삶들과 관습들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 이집트에서 ‘One Dollar !’ 를 외치는 가난한 어린이들과 수천 년 동안 거친 사막에서 낡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베두인들을 볼 때, 문명인의 우월성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거든, 자만(自慢)에 빠진 자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에는 검은 모자와 검은 두루마기 차림에 검은 긴 수염을 달고 거리를 활보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다양한 모습의 기독교 종파의 수도사들, 하얀 통치마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른 무슬림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모두가 서로 다른 신앙과 색깔로 제각각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욕심과 만용으로, 배타적 감정과 보복의 법칙에 따라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이 자행된다. 그렇게도 대조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긴 호흡과 요동치는 고동소리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채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눈으로 이들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과 증오, 절망과 희망, 전쟁과 슬픔, 영광과 오욕, 상실과 울부짖음, 고통과 후회가 교차된 살아있는 박물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굳이 묻는다면 나는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 경제적 힘보다 더 큰 ‘영적인 힘’을 나는 믿는다.)

역사는 ‘종교’가 가진 잔인한 폭력과 맹목성이라는 전근대성을 가진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단순히

종교를 숭고하고 도덕적인 어떤 것,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모순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이의를 제기한다. 종교란 보편적인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복잡한 측면을 갖고 있다. 또 잔인한 폭력을 성스러운 의무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비롯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역동적이고 모호한 실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종교를 초월성과 권위를 구축하는 담론(談論), 그 담론에 근거해 세계를 형성해 가는 실천(實踐), 이 담론과 실천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체(共同體), 그리고 이런 담론과 실천과 공동체가 만들어낸 전통을 감독하고 규제하며 지켜나가는 제도(制度) 등 모든 차원을 기초로 하여, 종교와 정치, 종교와 폭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종교가 세상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 ‘현장’에서 ‘현재’의 눈으로 읽는 성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동의 분쟁과 평화의 노력에 관해 현장감을 가져야 한다.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다. 이 지역의 현실을 만나보고, 직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의 실천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나는 현실 앞에서 정직해지자. 연민도 자만도 모두 금물이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되 연민하지 말며,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듯 측은히 여기지 말라. 이 모두 우월감의 발로 일 뿐이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현지인과의 접촉’ 없는 여행은 실패다

가능한 현지인들과의 많은 접촉을 시도하라.

소통이 되든 안 되든, 가능한 한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시도하라. (외국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대부분 답사는 현지 가이드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가이드의 눈을 통해 현장을 보는 답사만큼 바보스러운 답사가 다시 있을까? 개인적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면 야간(夜間) 답사를 잘 활용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 ‘자료 수집’과 ‘기록’의 힘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라.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갖고 사진자료, 메모 등 자료수집에 재능을 발휘하라. 설교주제와 연구주제를 듬뿍 안고 돌아오라. (어떤 목사님은 성지답사 후 주일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왔으면 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라. 지식과 자료와 체력을!

■ ‘길’ 위의 삶, ‘길’ 속의 답 찾기

‘순례’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길’(과정)이 더 중요하다. 목적지 중심의 순례에서 ‘길’이란 단지

출발점과 목적지를 잇는, 짧을수록 좋고 빨리 지날수록 좋은,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과 거리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순례란 길에 오래 머물며, 길 위에서 삶의 목적지 이상의 의미와 무게를 발견하며, 길 위에서 해답을 찾는 행위이다.

IV. 대안(代案) 성지순례 — 팔레스타인

■ 신학적 배경

- (1) 예수의 사마리아 방문기 —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한 4:3~42)
- (2) 동심원의 신학 —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 (3) 그들은 화해했을까? —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나란히 참석한 이삭과 이스마엘(창 25:9)

■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과도한 이스라엘 사랑

- (1) 성서의 땅, 하나님의 백성 신화 — 식민지배 시대의 독립과 해방의 메시지
- (2) 1960~70년대 이스라엘 민족(애국)주의 신화의 ‘정치화,’ 1980~90년대 성지순례의 ‘상업화’
- (3) 최근 ‘창조경제’의 모델로서의 이스라엘 열풍 재개
- (4)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를 수정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팔레스타인 바라보기

[참고] 최창모, “한국 근대지식인의 유대인 이해,”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0-3집(2010), 71~100쪽.
 ———, “한국 근대사에 등장한 유대인·유대인 이미지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9-1집(2008), 93~113쪽.
 ———, “한국사회의 유대인 이미지 변천사 소고,”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1집(2008), 113~138쪽.

■ 공정여행(Fair Travel)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착한여행’이라고도 한다. 즐기지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을 비롯한 영미 권에서 추진되어 왔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하지만 관광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은 G7국가에 속한 다국적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여행을 통해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구입하는 등 지역사회를 살리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 현지 방문 및 네트워크 모색

- (1) 성서와 관련한 장소 방문하기 —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내 유적들
cf. 이스라엘 내 지역의 유적지
- (2)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하기 — 여러 다양한 이념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가들과 만나
사업 파악, 신중한 연대 모색을 의논
- (3) 난민촌 방문과 원조를 위한 활동 — 난민, 수감자, 희생자들의 이야기 듣고 기록하기
- (4) 예술가들의 아지트, 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 방문하기
- (5) 공정한 무역을 위한 거래 활성화 추진 — 올리브기름, 잘린 올리브 나무, 기타 특산품 등

■ 한반도 평화연대를 위한 모색

- (1) 민간 및 비정부기구 차원의 정기적인 생명평화포럼 개최
- (2) 각종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류 — DMZ 및 분리장벽 앞에서의 시위 및 행위 예술(장벽에 그림
그리기 등)
- (3) 정기적인 인적 및 방문 교류 — 작가, 예술가, 공연 및 전시 등 기획
- (4) 예술 분야 — 영화, 연극, 회화, 사진, 문학, 만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창작 활동 지원 등
- (5) 난민촌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 설립, DMZ 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및 교류 사업 추진
- (6) 지도자(교사, 비즈니스, 기술, 생태 및 환경 분야 등) 육성을 위한 교환학생 사업(장학금)
추진

V. 나가는 말

“인간이 동등하지 않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차이가 없다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이나 행위가 필요 없을 것이다.”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이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평등하다 함이요, 이는 상호 ‘이해’의 필수 조건이 된다. 동시에 ‘다르다’는 것은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소통’의 당위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은 모순 같지만 서로 맞물려 있다. ‘같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 또한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차별’뿐이라는 사실을 각성시킨다. 즉, 동질성이 평등의 기초라면, 이질성은 자유의 조건이다. 자유가 없다면 평등이 깨지고, 거기에는 불균형과 두려움과 인종차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소통하지 못하는 걸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실재성을 갖고, 관계망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대성’이다. 그런 관계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인간의 인격성·개인의 신성성 등에 대한 담론들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이란 혼자만의 삶, 개인의 삶이 아니다. 타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지 않다. 인격체는 개체가 아니다. 인격체는 나와 타자로 이루어지는 관계망이다. 어쩌면 타자 없이 어떻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타자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타자가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주체와 객체, 생명과 사물,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지금 여기와 어제 저곳, 정신과 육체, 뿌리와 가지, 부분과 전체, 안과 밖, 시작과 끝, 표층과 심층이 서로 어울리는 동요동무적이고 상호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근본적 공존성은 입증된다. 공존의 이 상호 의존적 세계에서 폭력과 강제 없이 살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이 자리한다.

동시에 모든 정치경제 이론, 계급과 인종 간 차이, 여성의 권리와 남성의 권리 간 인위적 경계가 없는 지점이란 없다. 경계는 필수적인 인류학적 상수이다. 질서는 곧 경계다. 경계가 무너지면 질서는 교란되고 만다.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면 새로운 경계를 짓게 되지만) 질서가 교란되면 균형은 무너진다. 기울어짐은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 깨어진 균형, 즉 불균형은 삶을 건전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 남녀 간, 개인 간, 사회 간, 국가 간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인간사회국가끼리의 피상적 균등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남녀 간, 개인 간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개인 간 특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가 고찰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면서 타인과 화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인간들과 심오한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대중과 개인,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개인주의,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나와 너'가 아무 적대감이나 반대 감정 없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마담 드 스타엘(Madame de Staël)이 자주 인용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은 내게 감동을 준 적이 없다. 이 문구는 고해성사의 느낌이 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우월성 개념을 연상시킨다. 이웃은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대 녀석'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만으로 이해는 시작된다.

여성의 자유와 남성의 자유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자리하듯이, 한 인간과 집단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다른 쪽의 그것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비극은 인간관계의 편협함 속에서 시작된다. 잔인하고 야만적인 편견, 그것은 나의 삶과 타자의 존재 사이에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빚어지는 결과에 불과하다. 수많은 진보가 이런 모순에 부딪히는 것은 해방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다. 진보란 스스로 외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리사회적 관습개인의 삶과 성장에 훨씬 위험한 내부적 압박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20세기 후반 지성사의 흐름은 주체의 파괴, 광기적 역사에 대한 반성 등 근대적 이성의 모순에 천착하고 있다. 근대성의 비판은 주체의 타자성과 탈 경계성에 대한 몰두, 인간과 세계의 해체, 주체와 역사의 무력화로 다시 요약된다.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타자와의 교류 없이는 폭력의 역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반성되지 않는다면 정신은 이성적이기 어렵다. 반성이 없을 때 사고는 이성적일 수 없다. 비이성성이란 거짓과 오류를 의미한다. 반성이 중단될 때 사유는 자족적인 것이 된다. '자족적'이란 '폐쇄적'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폐쇄성은 사유의 자멸을 뜻한다. 대상에 의한 주체의 지배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대상에 지배될 때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평등할 수는 없다. 불평등한 조건 아래에서

주체나 대상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유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듯이, 평등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결국 불평등과 억압의 관계는 반성의 부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대상을 전체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할 때, 또 파악하려 하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든,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든, 사회와 사회 혹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든, 깨지기 시작한다. 반성력의 균형을 잃을 때 사고는 합리적이길 멈추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방적인 것, 아도르노 식으로 말하자면 ‘사고의 동일성’ 또는 ‘동일화하는 사고’가 강제되기 때문이다. 이질성을 불허하는 동일성의 원리, 즉 대상을 획일화하려는 지배의 담론이 곧 이데올로기이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50년 전에 발표한 《슬픈 열대》에서 서양문명의 ‘단일문화’에서 비롯되는 파괴적 압력을 고발한바 있다. 한나 아렌트 역시 본래 다원적인 인간관계를 획일화하고 절대화한 것이 전체주의라 하지 않았던가!) 이데올로기는 타자성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은폐시킨다. 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데 자유롭고 평등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우애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대상고찰(관찰)과 주체고찰(반성)을 추동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같기 때문에 평등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르기 때문에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다 같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며 생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질적 문화,’ ‘동질적 사고,’ ‘동질적 체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질적 문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다만 ‘같고도 다름,’ ‘동일성의 비동일성’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걸 너는 알고 있고, 너에 대해 네가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다름 사이에 어떤 동질성이 있으며, 이런 동질성으로 어우러진 삶의 복합적 이질성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이다. 화해란 적과 하는 것이지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비동일성과 이질성을 상승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진리와 기상, 모순과 조화는 이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면서도 상승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찰(대상고찰)이란 낯선 것의 수렴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성적 움직임이며, 반성(주체고찰)이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경쟁과 자극,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상태 — 역동적 균형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이질성의 존재와 개별적 고유성이 공존한다. 개별적인 것들의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차이에 우선 주목하면서 사물의 공통성이나 동질성을 추구한다. 모든 같등은 상이성에 관련되지만, 공존의 기초는 불일치성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혼혈의 세계’ 또는 ‘혼성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는 늘 ‘단순 복잡성’ 혹은 ‘명료한 애매성,’ ‘같고도 다름’ 속에 있다. 현실의 이런 모순된 성격은 통일적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이질성 만큼이나 동질성도 함께 있다. 일의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이질적이고 균열적인 배후를 내포한다. 통일적 의미체계란 인위적 강제와 배제의 산물이다. ‘단순 복잡성,’ ‘명료한 애매성,’ ‘같고도 다름’이란 단순/명료/같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복잡/애매/다르기 때문에 ‘균열적’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거부한 채, 오히려 복잡/애매/다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단순/명료/같기 때문에 이해와 평등이 가능한 심미적 합리성 또는 예술적 미메시스(mimesis)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순은 삶을 이루고 또한 추동시키는 세계의 실재인 것이다. 모순의 배제 또는 배제된 모순은 우리의 욕구이지, 사실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순에 대한 고려 없이 화해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균열을 포용하지 않고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도 마련되기 어렵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때 구원은 온다. 모순이나 균열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동일성의 사고에 저항함과 동시에 비동일성의 의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균열의 의식 속에서 균열을 포용하면서 주체는 비동일성을 자각하고 구제하며, 그러한 한 주체의 운동은 자유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전통과 구시대 관행을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역사는 모든 시대에 피 압제자들이 지배자에게서 진정으로 해방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 즉 저항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능력이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진다. 피 압제자들에게는 내부 개혁, 곧 편견과 전통, 관습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백번 중요하고,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 요구가 정당하지만, 동시에 적대적 이원론, 즉 적대하는 두 개의 세상을 형성한다는 이원론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입장과 관점만을 허용하는 배타적 근본주의는, 그것이 이슬람 근본주의이든 기독교 근본주의이든 유대교 근본주의이든지 간에 일부 서구정치 때문에 어느 정도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반현대적이다. 반개방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탐구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주의는 반현대적이다. 근본주의는 미리 정해진 하나의 견

해만을 절대적으로 추종함으로써 그 밖의 가능성과 여지를 헤아리지 않는다.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상대의 어떤 차이나 뉘앙스도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 아닌 모든 것을 적이나 악으로 간주할 때 스스로도 적과 악이 된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제약하는 모순적 민주주의를 낳기도 한다. 근본주의적 성향은 주체의 자유와 자율 능력에 대한 근대 이후의 모든 계몽적 사고를 흔들어버린다. 근본주의는 삶과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그것은 합리적 현실참여와 정치적 개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판단을 씩 없이 왜곡하고 위협하기 때문이다. 세 유일신 종교의 요람이었고, 온 인류의 평화와 우애, 개방과 사랑의 요람으로 여겨졌던 중동지역이 이제는 전쟁과 증오, 파괴와 반계몽적 행위의 무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 속에서 타자를 보고, 타자 속에서 타자와 더불어 자신을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해방을 위한 추동력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같게 존재할 수도 있는 공존적 화해의 지구 공간, 그것은 유토피아(utopia)일까?!

□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 토론 1.

『‘살롬’이 없는 종교적 방문에서, 대안적 평화순례로의 전환을 꿈꾼다』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1. 기독교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눈에 드러나는 겉껍데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사건과 사물의 본질을 간파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미련하여 꼭 눈에 보이는 무엇에 집착하여 본질인 하나님과 그 진리를 오도한다. 오늘 본문은 성지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까우면 종교적 신화를 만들어 파는 종교장사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생명에는 관심 없이 장사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마 21:12, 13).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에 과연 성지가 있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이다. ‘팔-이’의 슬픈 역사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매우 깊다. 유대인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과 민족지도자 모세 이후 가나안 정복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유대인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이나 모세시대 전후로 유대인 말고도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사회, 정치적 배경이 상당히 많다. 하나는, 유대-기독교 전통이 서구문화의 뿌리를 이루었기에 근대이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구문화의 유대-기독교 전통 아래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보다는 유대인에 대한 우호적(선호적) 감정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 역시 유럽역사와 관련돼 있다. 유대왕국 멸망 후 고향을 떠나 유럽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해 유럽은 줄기차게 멸시와 탄압을 가해왔다. 특히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가해진 가혹한 대량학살은 유럽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당시 세계 맹주였던 미국과 영국은 ‘뜨거운 감자’인 유대인 문제를 그들의 옛 땅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흔히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보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후 수많은 종족, 민족분쟁의 뿌리가 되었는데, 강대국 편익주의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대국가 수립이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올 리 만무했다. 하루아침에 거주지에서 쫓겨나 식민지 백성이 된 그 곳 주민들이나 이웃한 아랍 국가들은 유대 국가를 인정할 수 없었고,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역시 미국 등 강대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적대정책을 취해왔다.

2. 우리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과 인권, 삶의 질 향상에 특히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위한 길에 기독교인, 특히 한국기독교인들은 평화의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강자를 일방적으로 편들므로 분쟁과 불평등이 더 강화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에는 당연히 이스마엘 후손들도 포함된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엡 2:14~16, 18)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누가 잘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 3:25, 26)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게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씨, 곧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세상 만방의 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구약시대 내내 자신들의 선민의식에만 빠져 선민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민족의 침략을 겪는다.

롬 11장에서 바울을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을 분명 예고하고 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아무리 혈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어떻게 사사건건 유대인들 편들라는 말로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의도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3. 과연 성지순례라는 말의 바꾸지 않고 허구성을 벗을 수 있을까?

성경의 땅을 여행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분명히 신앙적 감흥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가 그저 땅 자체에 대한 추억이나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나라'의 정의, 평화, 자유와 해방,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 긍정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상승배로 끝날 수도 있다. 성경의 땅으로의 평화여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동시대를 살아야할 집단 사이의 일방적 지배/피지배 관계는 어떠한 경우든 평화

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팔-이’ 역사 또한 이스라엘과 서방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근거가 먼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평화도,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우리의 여행은 그 땅의 평화에 적극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강자의 지배와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발제자 최창모 교수는 올바른 여행에 자연지리, 역사지리, 인문지리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잘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소위 ‘성지순례’는 자연지리에만 충실할 뿐, 역사지리는 오직 구약, 신약 시대의 수천 년 전 역사만을 뒤밟고 있으며, 인문지리 역시 거의 이스라엘과 서방의 관점에 이미 채색된 반복학습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여행 전후 방문지의 역사와 현실을 충분히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일상적 상품화되어 있는 소위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행이 주는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적 평화여행 코스와 내용 등을 적극 개발하여 대중화, 상품화할 필요도 있다.

□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 토론 2.

장벽이 있는 곳

평화가 없기에 가장 아픈 곳

그리스도 마음으로 찾아가고 접촉하는 관계 형성을 통해 평화 구축 가능하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위원장,
세계YWCA 실행위원)**

탈식민주의 비평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옛 인류학자들의 가설이며 아주 “나쁜 인류학”(bad anthropology)의 가설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은 속한 문화의 표상이라는 가설이라고 그의 논문 “번역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Translation”(1992)에서 주장한다.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고 특히 주류에 대항하는 작가에 흥미를 느낀다는 뱅갈 출신의 이 비평가는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차이(difference)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식에 갈급해 모든 역사적 다양성을 몇몇 영역으로 나누어 주입하는 역사 공부를 해왔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편해 하고, 나아가 적대시하기 쉬웠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윤리적 주체와 갖대를 생산하는 주관적 메카니즘이 있기에 각종 근본주의가 자리 잡는 구실을 주며, 또 정치에서는 민주적 지도력이라 세우면 어느새 지배자가 되어 소수의 다른 길이나 생각을 다수에, 혹은 권력자의 생각에 통합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쉬웠다.

그래서 책상을 떠나 ‘다름’을 피부로 느끼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여행은 그 어떤 학습 현장보다 확실한 ‘다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기회가 맞긴 맞다. 스피박은 여행도 안 해 본 번역가는 특정언어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번역하기 쉽다고 경고 한다. 따라서 그런 번역 결과물로 특정언어권 독자들은 한참 왜곡되고 통합된 이미지로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사람들은 신발도 안 신고 사는 줄 알지 않았나?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는 자세, 모든 개인을 개별적으로 ‘응시’(gaze)하는 노력은 그래서 소중하다.

이스라엘이 “안전의 이유”로 지난 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팔레스타인 웨스트 뱅크 쪽에 7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쌓는 수고를 왜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알 길은 없지만, 최소 뿌리 깊은 갈등, 거의 “운명”처럼 이어져 오는 갈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가 그 갈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야를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 즉, 서로 간에 ‘다름’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나 ‘차이’만큼의 갈등은 예견된 현상이다. 따라서 교회들만큼이나 많은 상업적 여행사들에서 친편일률적으로 기획해 내놓는 ‘성지순례’라는 ‘여행’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정리할 때라는 생각, 그리고 ‘대안 성지순례’ 방안을 모색하여, 동시에 저 두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조정해 나아가는가하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대안 성지 순례’ 기획과 더불어 ‘증거 여행’(Witness Trip)도 기존 순례여행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높은 벽을 쌓아 올리는 한 쪽이, 바로 우리들 북쪽에 있는 동족과 어느 면 참 비슷하다는 생각에 ‘대안 성지 순례’는 우리 네 나라의 문제를 열어 놓고 머리를 맞대는 여정이 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이 특별한 순례를 시작하여 중국에 갈등 해소의 귀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년 11월 한국YWCA는 창립 9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YWCA의 ITI 교육프로그램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주제가 여성폭력추방과 평화구축이었기에, 그리고 2011년도 세계YWCA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 여성 인권 관련 결의문의 실천 사항 중 ‘DMZ Witness Trip’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 30 여 개 국에서 온 YWCA 여성리더들이자 교육생인 그들을 데리고 철원 DMZ를 방문했다. 한국이 분단국가인 사실조차 모르던 그들은 DMZ 내의 평화공원, 끊어진 철도, 폐허가 된 ‘로동당사’, 전시관 등을 방문하며 두 개의 한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분쟁 현장을 실감하며, 모두들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참고로 세계YWCA 이사회에는 20명의 이사가 있다. 회장과 재무이사를 제외하면 이사는 18명. 지난 2011년 회기에 중동지역을 대표하여 후보로 나왔던 팔레스타인 YWCA 부회장 하이파 바람키(Haifa Baramki)와 이집트의 호다 카밀(Hoda Kamal El Mankabady) 세계Y 이사가 있다. 특별히 이들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한국YWCA의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을 세계운동화하자는 안을 이사회 때 기타 사안으로 건의하자, 바로 중동의 이 두 이사가 각각 동의와 재청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갈등의 현장, 분쟁의 벽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각각 살고 있는 네 나라는 더 많은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YWCA는 1893년 자파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여성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봉사활동을 벌이다가 1918년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세계YWCA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Y 회원국이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도 아프고 팔레스타인도 아프다. 마치 북한이 아프고 우리 남쪽의 한국도 아프듯이 말이다. ‘보안장벽’이든 ‘분리장벽’이든 GOP 철책이든 38선이든, 갈등으로 분쟁으로 벽을 쌓고 철책을 두른 곳, 바로 평화가 없는 곳은 다 아픈 곳이다. 용어가 ‘보안’이고, 말이 ‘분리’이지 진정한 평화가 실종된 곳이기에 벽이 있다. 그것도 가시적으로 아주 높은 벽이 말이다! 병이 걸린 곳이기에 지구에서 가장

아픈 곳이 맞다. 그래서 우리 네 나라가 모두 이 순례의 여정에 참여하면 좋겠다. 여기서 또 편을 가르지 않기를 바란다. 포용과 ‘접촉’이 또 다른 분열을, 시기와 갈등을 부른다면 ‘정직’한 순례라고 보기는 힘들 테니까.

우리는 휴전이라는 분쟁의 현실 속에 살고 있기에 저 중동의 두 나라의 아픔도 쉽게 공감할 수 있긴 하다. 단순한 다녀오기 식의 순례가 아닌, 발제자가 제안하는 공정한 여행, 현지인과 접촉하는 여행,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여정, 나아가 한반도 평화연대로 발전하는 순례가 잘 정착되어 “공존적 화해의 지구 공간”이 네 나라 두 변경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유토피아는 지구상에 없다. 그러나 갈등을 풀어버리고 나란히 함께 사는 나라는 많다. 빈번하게 흥황하리라 믿는 “대안 성지순례”에 힘입어, 서로 감격하고, 서로 격려하다가 우리들이 어느새 그렇게 갈등을 풀어버리는 그런 네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담을 쌓는 사람들에게 관한 담장 고치기”(Mending Wall)라는 재미있는 시가 있어 그 끝부분을 소개하며 토론을 마친다.

나는 그가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처럼
양쪽 손에 큰 돌을 단단히 그러쥐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내게는 그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숲이나 나무 그늘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해 주신 말씀의 참뜻을 보려하지 않고
다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튼튼한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라고.

“아버지가 해 주신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거나 깊이 묵상도 않고, 단지 머리끝으로 기억하여 행동강령으로 삼고 밀어 붙이는 저 이웃! 혹은 나? 그들도 없는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기 시대의 야만인 같은 저 이웃의 모습, 혹은 나의 모습. 시인이 그린 저 “구석기 시대 야만인 같은” 이웃은 바로 중동의 어느 나라 모습 아닐까? ‘대안 성지 순례’ 방안이 자리를 잡아 저 이웃이 “큰 돌”을 내 던지고,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 토론 3.

팔레스타인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만남

유시경(대한성공회 신부, NCC 국제위원)

1. 한 미션 중고등학교의 크리스마스 헌금과 가자 지구 아랍인 병원

일본 파송 선교사로 2000년 12월에서 2010년 3월까지 10년을 일하던 중, 파송된 첫 해 크리스마스 때에 제 자신의 팔레스타인 경험에서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공회가 설립한 텃교(입교) 학원의 대학교 교목으로 일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각급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크리스마스 헌금을 하는데, 이 중에 중고등학교의 헌금으로 가자 지구의 아랍인 병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째 가자의 병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작은 헌금 지원조차, 기독교(교회)의 영향력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일본 사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운영진이나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한국과 같이 교회가 이스라엘-유대 신화에 점령되어 있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일본 사회가 비기독교 사회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성지순례'의 기획과 시도

제가 일하던 지역은 성공회 동경교구에 소속되어 있었고, 동경교구는 2004년부터 예루살렘-중동 교구(Diocese of the Jerusalem and the Middle East)를 공식 방문하면서 자매결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동경교구 예루살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구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포함된 지역이다. 약 7,000명의 신도, 31개 교회와 병원, 진료소, 유치원, 학교, 직업훈련소 등을 3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우 시설과 노인복지시설도 있다.

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 현지 교회와 논의하면서 교류단의 여정과 성지 방문 일정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현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방문단의 일정은 현지의 장애우 시설 자원

봉사 활동(The Holy Land Institute for the Deaf) + 현지 주민(크리스찬)과의 교류 + ‘새로운’ 성지순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방문 기간보다 오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사후 교류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지 방문에 이어, 현지민을 일본으로 초대해서 교류회와 팔레스타인 문제 강연과 학습회 등을 개최하며 양방향 교류를 진행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도 교류를 통한 연대와 지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귀국 후 NCC 국제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안전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마침 NCC와 YMCA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에 대한 연구와 소개가 이루어졌고 대안 성지순례가 기획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본성공회 동경교구의 경험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곤혹스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본측 위원장 칸자키 신부님은 제게 신신당부한다며, 만날 때마다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편향 성지순례를 어떻게 해 볼 수 없겠느냐?”는 어려운 주문을 하셨지요. 거의 박해 수준이었습니다. 이 또한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편향된 모습을 반성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지순례 참가자들이 분리장벽으로 배제된 이들, 차별과 파괴와 살생의 역사, 엄존하는 갈등과 대립의 현실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Living Stone이 아닌 Dead Stone만을 보고 오는, 이스라엘-다윗 신화를 확인하고 감동으로 포장된 순례를 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3. 2010년 1월 동경 시내 가두행진 데모의 기억

2009년 연말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과 폐쇄를 감행했습니다. 1월 중순, 17일 저녁으로 기억합니다만, 동경 시내 수상 관저 근처의 룩풍기 거리에서 무려 1,300여명이 참여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에 대한 항의와 폐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데모였습니다. 이 지역은 요즘 자주 보도되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데모가 일상화된 지역입니다. 어지간한 일본 국내의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좀처럼 시민들이 결집되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이 정도 규모의 데모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일본이 비기독교 사회이기에 오히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추측건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수많은 교회 때문이겠지요. 현상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신앙’이 ‘신앙적인 실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전통 서구 신학의 영향으로 인한 이스라엘-유대민족-다윗 왕조 중심의 성서 이해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4. 유대교 랍비, 연구자 야코브 라브킨(Yakov M. Rabkin)과의 만남

아쉽게도 예루살렘 위원회 활동은 2010년 3월 귀국과 더불어 중단되었지만, 이후 성공회 신자이자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장인 나가사와 에이지(長澤榮治) 교수를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 연구자인 야코브 라브킨 교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위 연구소가 주최한 “아랍의 봄 이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향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동경에서 열려 논찬자로 참가해서 라브킨 교수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코브 라브킨 교수는 1945년생으로 현재 캐나다 몬트리얼대학 역사학 교수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저서로 “토-라의 이름으로 - 시오니즘에 대한 유대교 저항의 역사”(칸노 켄지 역, 2010년, 일본 헤이분샤), “이스라엘이란?”(칸노 켄지 역, 2012년, 일본 헤이분샤 신서)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이기도 한 라브킨 교수는 본인의 저서를 통해 특별히 시오니즘의 정치적 변질을 다각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신학자로서 유대교와 시오니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깊이 있는 연구로 밝힌 그의 노력에 주목하고, 반드시 소개하고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금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의 개혁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국제적인 협력과 외부적인 노력이 결부되어야만 변화의 실마리가 잡히리라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위 두 권의 책에 담긴 그의 논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4-1. 시오니즘의 변질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앙공동체의 의미가 민족주의에 바탕한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변질되었다. 유대교는 민족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토라(성전)의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민족의식이 통일성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2. 철학자 레이보비츠의 분노서린 지탄

“예를 들어 종교적인 유대인 가운데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점령 지구의 사수(死守)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소위 ‘대(大) 이스라엘’을 이루는 정책이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요 종교상의 계율이라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의 신이다’(출애굽 32장) 라고 외쳤던 이들의 후계자이다. 금송아지는 오로지 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 ‘토지’, ‘국가’

등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

4-3.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땅

시오니즘은 <약속의 땅>에 귀환할 권리가 있다고 정당화해 왔다. 시오니즘은, 유대인은 수세기에 걸쳐 매일 세 번씩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라(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 귀환에 관한 기도는 “그곳으로 추방된 유배자들을 돌아가게 해주소서” 라고 하느님께 탄원하는 외침이지, <땅>의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말 자체도 모세 오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예언자 시대에 유래하는 이 말은 <가나안의 땅>, <아모리인의 땅>, <히브리인의 땅>이라고 나온다.

4-4. 시오니즘 민족주의의 유래는 유럽식 민족주의에 있고, 유대교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교 전통에는 바빌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듯이 3가지 맹세가 있다. 이스라엘 잔여 세력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바로 전날 서약한 것이라 전해진다.

첫째, 백성으로서의 자율권을 획득하지 않는다.

둘째, 예를 들어 다른 민족들의 허락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대대적인 조직적 귀환은 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민족에게 창을 향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서약은 15세기 스페인에서 있었던 레콘키스타(국토회복운동) 시기의 유대인 추방 때 효력을 발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 영국, 네덜란드 등지로 대거 이주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자는 극소수였다. 경건한 유대교도들은 위기적 상황에서도 속죄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유배의 신세일 수밖에 없고, 이 유배는 토라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과이기에 의당 짊어져야 한다. 경건한 유대교도들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이 서약을 지키며 디아스포라를 받아 들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에는 결정적으로 이 유대교적 메시아주의가 누락되어 있고, 유대교는 국가의 도구가 되었다. 시오니즘은,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새로운 민족 의식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민족 그룹을 지구상의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현지 주민과 바꿔버리고, 이 식민지화된 영토를 되찾으려는 선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자신들을 지키는 것으로 되었다.

4-5. 한국 교회와 신학적 과제

이상의 연구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 교회도 새로운 시각에서, 억압과 수탈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의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신학적 이해를 되묻고 새로운 답을 시도하는 신학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5월 - 한국 현대사가 지니는 역사적 채무

끝으로 5월이 되면, 대학 1학년 때 선배들을 통해 광주 비디오를 보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10여분 정도 되는 짧은 비디오였는데, 독일의 로이터 통신 기자가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광주민주항쟁 현장에서, 아마도 기자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렵게 찍은 것이었겠지요. 그렇게 억압받는 자의 눈물과 함성을 전하는 자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2년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친가도 외가도 모두 경상도인 저는 아예 호남 지방을 처음 간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호남선 고속버스 대합실의 왜소함에 놀랐습니다. 경부선 대합실의 규모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인 것에 또 한 번 놀랐고, 광주 현지에 가서 소위 광주 '사태'의 진실과 현장을 확인하면서 슬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역사가 이렇다는 말인가?

70-80년대 한국 사회는 세계 각국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의 격려와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를 통해, 수많은 시민 단체와 교회 기관을 통해 물질적으로, 기도 후원으로, 또 전 세계에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호소하는 눈과 귀와 입 역할을 많은 분들이 감당해 주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가, 물론 국내적인 슬한 과제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과 같이 억압과 눈물의 역사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역사적인 채무를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위 선진국들의 문제가 '무관심, 무감각, 무감동'의 3무(無) 현상이라고 했는데, 요즘 한국 사회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아픔에도,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 위협에도 무관심, 무감각, 무감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대안 성지순례를 논하는 자리이지만, 그 일은 단지 순례 기획으로만 그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 우리 자신의 평화를 향한 과제를 확인하고 한국 현대사가 지니는 세계사 속의 역사적 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 성지순례를 고민함

최소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1. 이웃과 더불어 살기의 어려움

멀리 있어 가끔 만나면 반가운 사람도,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노라면 토닥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인 듯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 사이에는 ‘사이’, ‘틈’,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만,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일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치약 짜는 방법’ 때문에 매일을 다투는다고 하듯... 차라리 이웃 종교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다하지만 같은 기독교 안의 ‘이단’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처럼 같은 공간(땅)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 쉽 없이 분쟁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로서의 ‘틈’이 아니라) 상대방의 ‘틈’(약점)을 노리는 이웃 국가들이 더불어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겠지요.

2. 패러다임 바꾸기 - 시로페니키아 여인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패러다임 바꾸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일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에게서 이 패러다임 바꾸기가 멋진 모습들로 되풀이되곤 하는데, 그중 여성의 입장에서 대안 성지순례를 생각하려고 하니 ‘시로페니키아 여인’(마가복음 7:25-29)이 떠오릅니다.

처음 이 여인은 그저 ‘아픈 딸의 어머니’로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대면하며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에게 ‘식탁 공동체’를 넓혀주기를 요청하는 순간, 이 여인은 (최소한 우리에게) ‘세상의 어머니’로 변화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은 바로 광야에서 유랑하던 아람 족속,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의 무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은 가나안 민족과 유대 민족 사이의 갈등과 반목, 전쟁과 죽음,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미 여기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뿌리 깊은 땅이었지요. 땅은 하나요, 그곳을 차지하려는 이들은 여럿이니

다. 누군가가 차지하면 다른 이들은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 세상의 법칙을 바꾸어버립니다.

누구는 성공과 번영이라는 높은 식탁에 앉아 빵을 독점하고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세상의 ‘개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먹을거리를 나누며 생명을 양육하는 세상으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을 것 같던 질병을 넘어, 모든 민족, 온 세계, 생명 전체가 한 식탁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으로! 한 어머니가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생명의 치유와 경계 넘기를 요구한 순간,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픈 딸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이제 세상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3. 대안 성지순례

대안 성지순례는 삶을 나누는 일이며 둥근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또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삶을 바꾸는 일이고, 우리 신앙의 실천, 아니 신앙 자체를 점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열린 식탁 공동체’는 아직 예수의 땅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성지순례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직 성지순례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할까 합니다.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두 장소, 두 경험을 병행하는 것만으로 대안이라 부를 수 있을까?

2)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인가?

3)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영향에서 대안 성지순례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의 논찬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I. 발제문의 개요

귀한 발제를 해주신 최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발제문을 재구성하여 간단히 요약한 후 논찬을 하고자 한다. 발제자의 문제 제기대로, 세 유일신 종교의 요람이었던 팔레스타인지역이 왜 전쟁과 증오, 파괴와 반계몽적 행위의 무덤이 되었을까? 인간과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반성의 부재가 이질성을 불허하는 동일성의 원리를 낳게 되어 타자성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적대,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해방과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발제자는 “자신 속에서 타자를 보고, 타자 속에서 타자와 더불어 자신을 사는 것”이 삶의 해방을 위한 추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평등과 억압,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① 타자가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삶의 근본적 공존성과 ② 인간은 동일성으로 인해 평등하고, 이질성으로 인해 모순과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모순과 균열을 포용하고 적대적 이원론과 배타적 근본주의를 배격하며 동일성 사고에 저항해야 한다. 셋째로, 비동일성 의식을 극대화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오와 파괴와 전쟁의 공간을 공존적 화해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발제자는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로, 기존 성지순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과도한 이스라엘 사랑 또는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 그리고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지역의 현지인들과의 접촉과 현지 문화와의 소통을 외면하는 성지순례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로, 환경오염, 문명파괴, 낭비 등 과거의 잘못된 성지순례를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정여행으로서의 성지순례를 추진한다. 셋째로, 유적지, 난민촌 등 현지를 방문하고 원조를 위한 활동 및 평화운동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모색한다. 넷째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연대를 모색한다.

II. 발제문의 의의

1. 발제문은 한국교회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의 문제점을 삼단계로 나누어 지적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2. 발제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파괴의 현상이 되어 버린 사실에 대해 그 원인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3. 발제문은 팔레스타인지역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 평화운동과 연계시킴으로써 평화운동에 있어서의 연대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III.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대안 성지순례

1. 교회가 성지순례를 평화운동의 기회로 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화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¹⁾

1) 콘스탄틴주의²⁾

교회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첫째 이유는 교회가 국가(세상)와 너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국가와 너무 밀착되어 있을 때 교회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실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에 근거한 지배체제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는 지배가 없는 탈지배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평화윤리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 것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이 계기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군대와 제국의 폭력을 거절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 반면,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폭력을 도덕적으로 참아낼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예수의 비폭력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교회는 지배체제인 로마제국과의 밀접한 결합으로 인해 비폭력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현존질서의 지지

교회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콘스탄틴적 현상유지의 입장 때문이다. 로마황제가 기독교를 수용함에 따라 교회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게 되

1) 정원범 편저, 『평화운동과 평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9), 39-42.

2) 존 하워드 요더는 콘스탄틴주의를 가리켜 “그것은 교회와 세상의 동일시를 상호 승인한 것이며 콘스탄틴과 주교들이 지지를 주고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받았던 교회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해석을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떠받치는 방향으로 순응시켰다. 크리스텐덤 체제로 인해 형성된 바, 현존질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콘스탄틴적 사고방식은 종교개혁을 거쳐 서구의 주류기독교를 거쳐 한국교회로 그대로 이어졌다. 서구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기존 질서가 신적인 재가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하였고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유지의 입장은 한국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권에 대한 태도이다. 한국교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승만을 지지했고, 박정희 독재체제하에서는 박정희를 지지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는 전두환을, 노태우 때는 노태우를, 김영삼 때는 김영삼을, 그리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지지했다. 한국교회는 그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든지 아니든지,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들은 기존질서를 지지했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지지할 뿐이었다.

이런 모습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점을 따라 팔레스타인인(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을 포함하여)을 기독교인의 적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일방적인 추방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콘스탄틴적 현상유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앙의 사사화

교회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을 너무도 사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의 사사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마틴 루터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즉, “군주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그가 다스릴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군주이다. 개인은 물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직책과 군주체는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철저한 분리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입장은 산상수훈과 같은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나 내면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회 문제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한반도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탄압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기독교신앙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사사화 현상은 심각한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2. 팔레스타인 성지순례는 평화운동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개인구원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복음이고,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현실과 무관한 개인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개인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통전적 구원의 복음이며, 현존질서를 옹호하는 현상 유지의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체계와 불의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회변혁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을 뒤집어엎는 것”이고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혁명성은 마리아찬가와 예수의 취임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취임사는 예수의 사역이 현존질서를 옹호하기보다는 현존질서에 저항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하나님나라)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탐욕과 착취와 억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자유, 사랑, 정의,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그에 기초한 대안적인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재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팔레스타인 성지순례는, 그곳이 이스라엘에 의한 일방적인 탄압과 인권유린과 폭력과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평화운동의 정신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분쟁지역과 한반도에서 하나님나라의 평화정신을 실천하는 평화운동가(peacemaker) 양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전체 토론 속기록

사회 : 이윤희(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이윤희 (사회자)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는 것 자체만으로 대안이라 할 수 있는가? 팔레스타인 평화운동과 한반도의 평화운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한국기독교가 갖고 있는 패권주의 등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신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견이나 질문을 모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명진숙 (한국YWCA연합회 국장) :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적이라 한다. 대안 성지순례, 즉 비판에 근거해서 나온 것들이 이러한 기존 교인들과 어떻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협력에 대한 방안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존 교인들과도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요즘 공정여행, 착한여행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에서조차 대안 성지순례가 기존의 공정여행, 착한여행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부터 고민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김용복 (아태생명학연구원장) : 오늘 발제문을 비롯해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최 교수님께서 아픈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아픈 곳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자와 같은 곳을 정치적으로 분석한들 이러한 감동이 나올 수 없다고 보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가 보는 팔레스타인, 가자의 상황은 북한의 상황과 같다고 본다. 북한에서도 아이들이 굶어죽고 기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가자에서의 아픔을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 북쪽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에 아픔의 이야기가 대안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학적 작업은 조인트라고 할 수 있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이 나온 이후에 한국의 생명평화에 대한 신학 선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신학적 기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10월 WCC 총회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될 것이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결과가 있을지는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이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전쟁에 의한 아픔이다. 지금 가자상

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부세력, 더 나아가 미국, EU, 유엔 등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오늘 미국의 우익이 전쟁을 추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하나 보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뭔가가 잘되겠지’라는 방관자적 태도이다. 이것은 불감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통곡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대안 역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전에, 실질적인 본질, 초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박종찬 (IVF 학사) : 대안 성지순례가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다. 대안 성지순례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윤희 : 대안 성지순례를 이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평화의 씨앗들이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심포지엄이 안되었으면 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아쉽다.

최창모 :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험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싹튼다고 본다.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그냥 연민보다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장을 체험하고 그 땅을 밟는 것부터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 현장에 대한 체험이 그동안 왜 필요한지 몰랐거나 외면했거나, 이런 무지, 오류, 외면, 편견 등을 기반으로 한 광기로부터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딱 입구부터 들어가 보면 말이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체험을 다시 강조 드리고 싶다.

현재의 상황을 하나의 실타래라고 본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부터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난민촌의 어린아이들과 한국교회 어린아이들이 편지를 교환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교회학교 교재들에 실어내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성서의 땅인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문제 인식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안학교를 만들고, 같이 가서 고통을 나누고,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학위도 받고, 다시 현지로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안에는 자생적인 노동, 협동조합, 공동체가 많다.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곳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은 보안도 없는 나

라이기에 외국으로 나올 수가 없다. 입출입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기에 직거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 내에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곳은, 올리브 기름을 평화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잘 해놓았다. 사마리아의 올리브 농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안장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올리브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올리브 기름을 쏟아 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트라, 유엔 등 기구를 통해서 물건들을 사들이고, 공정무역을 통해 한국의 소비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뚫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이 멈춰지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반복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활동들이 아주 단편적인 것, 구호적인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다.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체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 담겨진 의미들을 검토하고 적용만 시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성지순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노하우를 어떻게 한국과 연결시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구교형 : 좀 전에 명진숙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오늘 발제와 운동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대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현 상황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과 동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앞의 자료에도 나왔듯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지만, 이것을 대안적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현 상황에서는 성지순례에 대해 너무 신화적인 감상이 팽배해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적인 감상에 따른 기존의 성지순례를 이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성지순례는 안가도록 해야 한다. 이 성지순례에 대한 수요는 대체할 수 없는 수요이지만, 대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업적, 종교 감상주의적인 이 성지순례는 안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운동이다. 또한 현재 공정여행에 머물러 있는 대안지역 운동은 어떻게라도 이어가야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자유주의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있는 곳에서 있는 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속에서 착한 것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 접촉까지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원영희 : 토론을 준비하면서 세계YWCA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2010년 7월 24~31일에 YMCA, YWCA, joining for justice로 구성된 15명의 19~20세 international students가 스리랑카를 비롯해 팔레스타인까지 witness trip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어떤 대안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유시경 : 이제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에 대체적인 내용을 다 채우기는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것 같다. 자칫 그러하다가 틀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할 수 있다. 성과를 너무 예단하지 말고 시작한 일을 세세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최소영 : 다각화가 필요하다. 성지순례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위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준비되면 좋겠다. 사전, 사후모임을 통해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 브로셔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운동의 일환으로써,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목회자, 여성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현장에서의 경험, 이 체험들이 다각화되어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팔레스타인의 사람, 경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신앙인들을 위한 치유가 급하다.

정원범 : 명진숙 선생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국내 영성공동체 탐방하는 것을 목사님들과 3개월씩, 6년 동안 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해보니까 수도원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화려하게 되어있지 않고 대부분 외곽 쪽, 숲 쪽에 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갔을 때 파리를 안보고 가냐는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프로그램 새롭게 만들었는데, 영성공동체를 찾아 가지만 가는 길에 따라 종교개혁 유적지도 가보고, 그 다음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도시들을 방문해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갔다 온 다음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들 좋아하신다. 마찬가지로 대안 성지순례도 기본적, 주테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폭력, 전쟁,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체험적인 평화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향수가 있는 분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특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윤희 : 시간에 촉박하게 쫓겨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몇 분이 먼저 가시게 되었다. 한 두분 더 토론해주시고 이제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안재웅 (한국YMCA연합회 이사장) : 강의를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광하자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대안 관광을 할 것인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형제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모든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안 관광이라는 틀에 휩싸이면 안된다. 동지로서 현장을 보고, 국가가 아닌 곳이 국가가 되도록 하고, 교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터

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방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윤희 :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았지만, 기획자로서 드는 느낌을 말씀드리겠다. 안재웅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는, 현장운동의 결합이다.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역사적 경험, 풀뿌리 운동과 민간의 결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지속성이다.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어린이, 교회, 여성 등을 포함해서 다면적 접촉의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네 번째, 팔레스타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팔레스타인이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던 동기 즉,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서구 중심, 이스라엘 시온이즘 중심의 신앙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이것들을 담을 수 없다면 대안성지순례운동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도 좋고 좀 더 세밀하게 깊게 토론할 수 있는 집담회를 통해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운동을 만들어나가고 넓혀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 고민들의 답이 결국 한국ATG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것으로 심포지엄을 마치겠다. □

□ 별첨자료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의 부름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응답¹⁾

- 생명평화의 대안성지순례를 생각한다.

이윤희 /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고난 받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가 왔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 ‘와서 현실을 보라’ 고 호소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평화와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례자로 받아들이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참된 현실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에서)

“왜, 한국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 관심 가져야 하는가?”

- 한국 기독교를 성찰하는 신앙운동이다.

2012년 11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전쟁과 점령, 인권 유린을 묵인해 온 한국 교회의 죄를 참회하며,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임을 밝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테러리스트와 이슬람을 옹호하는가?” 라는 질문과 “팔레스타인 지지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 는 응답을 받았다. 한국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선뜻 이야기하기를 주저한다. 연민과 부채 의식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나, 종교 간 갈등으로만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2천 여년 동안의 디아스포라(Diaspora)를 끝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한 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 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이에 더해 한국사회에는 키부츠와 이스라엘 여군이 70년대의 국가 동원체제와 획일주의, 안보의 상징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의 인식은 우리 신앙 선조들이 노예들과 피억압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해방과 자유의 열망으로 읽었던 성서읽기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과 자유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이 아닌 정복과 지배, 확장과 패권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뼈아픈 지적들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들만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맘몬의 게토(Ghetto)가 되었다’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1) <복음과 상황, 7월호에 실린 ‘평화의 여정에 한국 기독교가 함께하기를’를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떠나 종교라는 허울로 권력을 탐하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속 정치인들보다 더 타락했다’, ‘중세 시대의 사제들과 교회로 전락해 선데이 크리스찬(Sunday Christian)만을 양산하고 있다’ 는 등의 우려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 성서읽기가 맞는지, 한국 기독교의 현실과 신앙에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은 한국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찰운동이다.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있는가?”

“생명평화의 눈으로 성서 다시 읽기”- 정복과 패권에서 해방과 나눔으로.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성서의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편파적이며 차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는, 구약성서가 예수를 예언하고 증거하는 기독교 성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스라엘 국가 형성 이후, 유대인들과 기독교 해석자들이 구약성서를 시온주의의 성서로 보는 것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구약성서가 시온주의도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숙제이다.” (예루살렘 성공회의 아티크(Naim Ateek) 신부)

팔레스타인은 한국 기독교의 성서읽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²⁾. 특별히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가 건설과 점령을 성서적 예언의 성취로 보는 기독교 시오니즘(Christian Zionism)³⁾과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 미치고 있는 영향, ‘선택된 백성과 약속의 땅’에 대한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과제⁴⁾이다. ‘선민사상’,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정복’ 등은 중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었으며, 근대 유럽의 전 세계에 걸친 식민주의와 침략 이민자들에게는 그들의 정복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였다. 십자군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스스로가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살육을 자행하고, ‘이것은 성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근대 유럽에 의한 아프리카⁵⁾와 아메리카 대륙⁶⁾을 식민지화하는 역사와 이스라엘에 의

2) ‘아브라함과 계약’,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 ‘선택된 백성과 약속의 땅’,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의 관계와 갈등’, ‘다윗의 유대국가 건설과정에서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예수의 이스라엘 이해’, ‘바울의 기독교 선교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정의와 평화’ 등등 성서를 새롭게 읽도록 인도하고 있다.

3) 철학자 레이보비츠는 이에 대해 “종교적인 유대인 가운데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점령 지구의 사수(死守)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소위 ‘대 이스라엘’ 정책이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요 종교상의 계율이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의 신이다’(출애굽 32장) 라고 외쳤던 이들의 후계자이다. 금송아지는 오로지 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 ‘토지’, ‘국가’ 등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

4) “한국 기독교에도 어느새 기독교 시오니즘이 확산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올바른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서구 기독교에 대중적으로 팽배해 있는 오류와 편견에 물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반유대주의적인 대체신학과 기독교 시오니즘을 함께 극복하면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성서해석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기독교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성서해석 방법론에 관한 근원적인 성찰들을 요청한다.”, 배현주(부산장신대 교수)

5)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의 뒤를 따라 영군 군대가 쫓고, 온 사방에 믿지 않는 검은 ”가나안 사람들

한 팔레스타인 점령⁷⁾도 이에 속한다. 남아프리카 신학자 모살라(Itumeleng J. Mosala)는 이 이야기들이 백인들에 의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당하는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윤리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이런 식민지 정복자들의 합리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만 기여했던 건 아니다. ‘가라 모세(Go Down, Moses)⁹⁾’ 라는 흑인영가에서 볼 수 있듯 땅을 잃고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모델이기도 하였다. 한국 기독교 또한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신앙이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애굽 땅 노예들의 탈출과 해방이라는 이야기로 절망을 견디었고,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 앞에 새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설파했고 한민족의 단결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고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이와 같이 인종차별과 식민지의 땅에서, 전쟁과 분단이라는 고난과 수난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신앙이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나눔을 만들어가는 평화와 치유의 종교였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되어 버린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 한국 교회의 성서해석과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신앙의 선조들이 말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과 질문을 통해 다시 성서읽기를 함으로써 한국 기독교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

“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므로, 우리들을 적의 손에서 구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자유를 주셨다” 1836년, 화란계 아프리카인들의 ‘거대한 마차행진(the Great Trek)’ 기록에서

6) 1776년 미연방공화국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신생 미국의 국새(Great Seal)에 약속의 땅 이미지를 넣자고 제안하였고, 1805년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제퍼슨은 “그는 우리를 품어주시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우리 선조들을 옛 고향에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평안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사상과 미국을 고대의 가나안과 일치시키는 시도는 원주민들을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추방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했고 식민자들 스스로를 ‘사탄의 세력’인 미 원주민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원주민들에 대한 약탈, 살인, 전쟁, 강제 이주, 땅의 강제 수용은 정복 신앙에 기초한 식민지 세력에게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7) “성지(Holy Land)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은 유대 전통에서 있어서 의무다”, “자신들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에게 땅의 문제는 경제적인 혹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점령지역을 빼앗고 지키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말한다.

8) “백인들이 성서를 오용한 결과에 대한 항의는 흑인들로 하여금 백인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종 격리주의의 특혜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왜 이런 이야기가 성서의 앞부분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성서 전체가 인권이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음이 오직 유일한 타당성과 설명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9) “내 원수 네 앞에 서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 차지하리니. 이 세상 근심 걱정의 광야를 넘어 가가자 가나안으로. 이제 노예의 쇠슬 끊어 버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리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호소와 요구 :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

“왜 지금인가? 왜냐하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극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현존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고,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신실한 자들의 마음에는 고통과 의문이 가득하다. 과연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다. 문제는 인간들을 파괴하는 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 곧 우리 땅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 국제 사회와 세계 교회의 자매 형제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2009년 12월 9일 발표)’의 원제는 ‘진실의 때’이다. 이것은 남아공화국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중요한 계기였던 ‘85년 카이로스 남아공선언’에 비견되어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으로 불리고 있다. 이 선언은 67년 신학선언, 88년 선언에 이은 세 번째 팔레스타인 선언이다. 67년 선언은 ‘6일 전쟁’의 참상 이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신학자들의 고백문이고, 88년 선언은 87년 ‘1차 봉기’의 충격과 희망에 대한 선언이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가 작성된 특별한 계기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20년 이상 진행되어왔던 평화협상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평화가 없음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무장투쟁 또한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제3의 대안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보이콧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문서는 팔레스타인 모든 기독교 교단이 참여해 1년 6개월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슬람, 세계 교회, 국제 사회 등에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알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길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선언문이 한국 교회에 많이 보급되고 읽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일부를 그대로 전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랑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편들지 아니하시며, 다른 사람의 얼굴 앞에서 다른 이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의 편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주이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정의를 요청하신다. 우리는 자매 교회들이, 우리에게 점령의 죄가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신학적으로 무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자매 형제들을 향해서 제기하는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자유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지 않는가?”

“대안성지순례의 시작 – Come & See”

대안성지순례에 대한 고민은 한국 교회에 대한 성찰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단지 종교적 관심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대안성지순례는 성서를 다시 읽는 운동이자 한국 기독교의 신앙세계에 대한 성찰운동이지만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를 통해 아랍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서구 주류 신학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을 인정하는 도구로 전락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으로 직접 와서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교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이 같은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다. 냉전시기 한국인들에게 ‘빨난 북한 사람’ 들이 있었다면, 지금 서아시아 아랍 세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위험한 테러리스트’ 다. 서구 언론에 비친 이미지다. 한국 교회의 성지순례가 서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만을 더 깊게 하고 한국 교회에 극단적인 기독교시온이즘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 교회의 ‘확장과 정복 중심의 신앙관’ 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것이 대안성지순례의 시작점이다.

‘지금의 성지순례가 이에 대한 응답이 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이야기를 만나기보다는 죽어있는 박물관을 다녀오듯 하는 것이 성지순례인가?’, ‘참여자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질문’ 이 없거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서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과 편견만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것을 성지순례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대안성지순례의 두 번째 질문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지와 성지순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필자가 팔레스타인을 처음 방문했던 2010년 9월이 잊혀지지 않는다. 도착 첫날, 텔아비브 공항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차 안에서 한 발의 총소리를 들었고 무슨 일일까 내내 궁금해 하며 아랍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해 한 소년이 총에 맞아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분노했지만 겁에 질려 숙소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서성였던 그 당혹감. 팔레스타인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상적인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 당시의 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내내 한참이나 나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이다.

이 당혹감은 9m에 달하는 분리장벽을 따라 걸으며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내가 갖는 두려움과 당혹감의 실체가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사진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는 팔레스타인의 현실에서 그들의 눈물을 만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시민들의 단체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현실과 삶, 평화에 대한 비전을 듣기 시작하였고 난민촌과 교회들을 방문하여 평화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가정을 방문하여 하루의 삶을 같이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시장과 뒷골목을 걸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으로 겪고 있는 분리장벽과 체크포인트를 경험하며 마치 닭장 차 안에 갇혀 있는 닭처럼 3~4시간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눈을 마주보기 시작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시대 예수의 음성은 어디에 있을지 묵상했다. 팔레스타인과의 만남은 ‘팔레스타인이 한반도’ 이고 ‘한반도가 팔레스타인’ 임을 확인하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은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시편 24: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그 어느 땅도 다른 땅보다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 변치 않는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 즉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시며 이 땅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하심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땅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은 이 땅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성소의 중심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 이다.(팔레스타인 아티크 신부)

“한국ATG,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의 응답”

팔레스타인 방문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 대안여행그룹(ATG, ALTERNATIVE TOURISM GROUP)¹⁰⁾을 주목하게 되었고, 일방적인 지원과 지지가 아닌 공동의 평화비전으로 한국ATG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ATG 창립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부름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응답이며,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2013년 10월에 개최되는 WCC 부산총회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창립함으로써 세계 기독교인들의 평화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한국ATG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증진은 물론 한국 기독교의 성서적, 신학적 지평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산해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순례, 팔레스타인, 국제 평화운동과의 협력(어린이 수감자 및 청소년,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순례를 통한 평화교육(Pedagogy), 평화의 감수성과 문화 확산, 지도력 육성(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파견, 올리브아카데미 등), 한국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적 신앙운동과 평화운동 참여

10) 에큐메니칼여행연합(ECOT, the Ecumenical Coalition on Tourism)과 카이로스 팔레스타인(Kairos palestine),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협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PIEF, initiative the Palestine-Israel Ecumenical Forum)의 주창으로 조직되었다. ATG는 성지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하는 여행과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팔레스타인 NGO이다.

확대(평화교회 캠페인 -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신학 심포지엄 및 평화박람회, 종교 간의 대화, 한반도 평화 국제캠페인 등), 올리브평화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ATG는 특정 교단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회, 단체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과 전통적인 계(契)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볼런티어스텝 운영, 납부된 회비의 30% 이내에서 평화순례 참가자 지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참여가 어려운 이들과 청년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과 청년 지도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순례가 말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평화순례는 공정여행, 착한여행의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팔레스타인ATG에서 제안하는 “Come and See - A guideline for Justice Pilgrimage to Holy Land” (2010)가 한국 대안성지순례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에 기여한다. 한국ATG는 한편에 일방적인 비난이나 지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순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한국 기독교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운동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 평화의 시각에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로 인해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자 한다.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이 누구인지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슬픔, 절망과 분노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소리에 기여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잠들어 있는 신앙과 교회를 깨우는 신앙운동이자 성서 다시읽기 운동이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손들에게 준 경험들과 팔레스타인 기독교 신학에 기초해서 형성된 그들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평화의 예배를 나누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힘을 찾고 꺾박 받는 이들과 한국 기독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읽으며 독립과 새 시대의 희망을 일구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고자 한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눈으로 성서를 읽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 기독교의 잠들어 있는 신앙과 교회를 깨우는 운동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적 상황과의 대화, CONTEXT가 있는 평화순례이다. 한반도는 일본 제국에 의해 36년의 식민지와 인종차별, 뒤이은 전쟁과 분단, 독재 권력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20세기 초 제국의 확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수난의 역사이자 이를 극복해 온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강대국의 침예한 국제 정치질서의 한복판에 있고, 분단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정전 60주년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

다. 팔레스타인은 한반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결코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이를 대변해 온 이스라엘 시오니즘에 의해 마지막 남은 식민지, 인종차별의 땅이자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¹¹⁾. ‘지정학적 국제정치의 패권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한반도 분단과 팔레스타인 분리, 점령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호소가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순례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와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과 국가 정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패권적 국제정치질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순례자의 삶과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평화의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다.

넷째, 평화의 사람들을 잇는 현장성과 민의 평화운동이다.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고통받고 힘없는 이들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다. 예수는 '세상의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연대와 협력에 의한 평화이다. 한반도 평화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이들의 연대와 협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팔레스타인 평화순례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만남이자 대화와 응답을 통한 상호간의 공유이다. 문화와 생활을 배우고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를 배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과 함께 드리는 평화예배,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성서 및 팔레스타인 이해, 체크포인트, 팔레스타인의 음식, 사람, 문화와의 만남, 성지순례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성찰과 관계, 기도와 연대의 지속성, 함께하기다. 평화순례는 한번 오고 가는 여행이 아니다. 성찰이자 변화이며, 학습이자 연대이다. 함께 하기이다. 팔레스타인과 나의 삶, 평화와 한국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고 응답이다. 따라서, 순례는 순례자의 삶의 자리에 있으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공동의 성찰과 기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들과 편지를 나누고, 그들의 소식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며, 어린 이웃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작은 정성과 수고들을 찾고 우리의 교회가 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어린 나이에 수감자 신세가 되어 있는 어린이들과 애끓는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품을 만들어가는 순례. 이처럼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 지지와 협력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경험을 갖고자 한다.

여섯째, 상생과 평화를 위한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만남이다. 한국 기독교는 모든 종파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왔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협력하고 3.1 독립운동이라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만들었던 주체이기도 하다.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형제

11) 서안의 82.8%와 가자지구의 40%가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전 세계 난민의 반인 700만 명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 2000년 9월 이후 10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7,40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1,895명이 어린이들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5,4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280명이 사망했다. 수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과 이동이 통제되고 있고, 70%가 실업상태로 자국 내 생산이 15%, 나머지 85%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등 팔레스타인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불법 점령촌과 관통도로, 그리고 8~9M 높이의 720여 Km달하는 분리장벽과 Check point(검문소)로 마을들과 가족들이 갈라지고 8개 지역에 갇혀 생활이 통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건설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인 이슬람인들과 평화롭게 살아왔으며 평화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이슬람인 자매형제를 만나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선악으로 재단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대하지 않고, 함께 대화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 모든 극단주의와 근본주의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제안하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그들의 자매형제를 만나고자 한다.

일곱째, 파트너십을 통한 연대와 협력, 새로운 청년 리더십을 만드는 평화순례이다. 평화순례는 한 편이 일방적으로 돕거나 불쌍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배우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국 기독교의 청년 리더십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파트너십으로 한국ATG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내에 있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인, 팔레스타인 출신 이스라엘 시민권자 그룹 및 외국인 평화운동 단체 등과 만나고자 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의 여정에 함께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한국 기독교가 평화의 여정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와서 보라!’

매년 2만~3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위험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의 땅 예루살렘,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보라!”

평화의 여정에 한국 기독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참고 자료]

1.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2009.12.11)”,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번역
2.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Roy H. May, Jr, 서광선 역,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 여성국 출판
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에 대한 ‘신학적 관점과 에큐메니칼 연대’”, 박성원(영남신학대학교 석좌교수, WCC 중앙위원), 한국YMCA생명평화센터 세미나 자료집(2011)
4. “Come and See - A guideline for Justice Pilgrimage to Holy Land, 팔레스타인 ATG, 2010
5. “한국 교회 성지순례의 문제점과 대안 성지순례 방안 모색” 심포지엄 자료집(2013. 5), 한국YMCA생명평화센터
6.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 페이튼 후사리(Faten husari, 팔레스타인 활동가)
7. “지구제국체제 아래 서아시아의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 김용복(생명학연구원 원장, YMCA생명평화센터 고문)
8. “팔레스타인 평화에 대한 성서 신학적 응답”, 배현주(부산 장신대학교수, YMCA생명평화센터 위원)
9.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실천적 과제”,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한국 ATG 설립 추진 제안서

팔레스타인 대안여행팀(ATG, ALTERNATIVE TOURISM GROUP)은 에큐메니칼여행연합(ECOT, the Ecumenical Coalition on Tourism)과 카이로스 팔레스타인(Kairos palestine),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협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PIEF, initiative the Palestine-Israel Ecumenical Forum)의 주창으로 조직되었다. ATG는 성지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하는 여행과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팔레스타인 NGO.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은 팔레스타인 현지의 요청에 응답하고 협력함으로써 팔레스타인 평화운동과 한반도 평화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에큐메니컬운동의 국제적인 지지와 참여를 조직, 확대해가고자 한다.

1. 목적

- 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순례 추진
- ② 팔레스타인 현지 네트워크, 국제 에큐메니컬운동과의 연대, 협력 기구
- ③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순례를 통한 평화교육(Pedagogy) 추진
- ④ 평화의 감성과 문화 보급, 지도력 육성(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파견 등)
- ⑤ 한국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적 신앙운동과 평화운동 참여 확대

2. 사업

- ① 다양한 계층, 프로그램의 대안성지순례 (명칭 개정 고려)
 - 대안성지순례 코스 3-4개 영역 개발(대상별, 코스별 등), 년 6회
- ② 팔레스타인, 에큐메니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
 - 어린이 수감자 및 청소년,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 WCC EAPPI, JAI, JIC, 팔레스타인신학센터, ATG, 에큐메니컬 모금재단 등)
- ③ 평화교육(페다고지) 및 지도력 육성
 -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가 파견(3개월, 6개월, 1년)
 - 팔레스타인 평화아카데미
- ④ 한국 기독교의 성찰과 대안 프로그램
 - 평화교회 캠페인(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 신학 심포지엄 및 평화박람회 등
- ⑤ 올리브평화기금 조성

3. 구성

- ① 협동조합형, 계(契) 방식의 조직 구성 / 운영 방식 참고
- ② 개인, 교회, 단체 참여

4. 운영

- ① 창립 기금 : 5천만원
 - 홍보 및 설명회, 현지 코스 개발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
- ② 가입 조합비
 - 개인 : 100,000원, 단체/교회 500,000원, 1,000,000원
- ③ 월 회비(조합비) 운영 : 1만원 이상, 자유(대안성지순례 참가시 지원)
- ④ 기금 운영
 - 개인 회비 : 팔레스타인 대안성지순례 참가시 회비에서 30% 이내 지원
 - 팔레스타인 현지활동가 파견 지원
 - 목적에 따른 사업
- ⑤ 조직 목표
 - 교회 : 30~50개, - 단체 : 15개 내외, - 개인 : 100명 내외
- ⑥ 기타 : 볼런티어 스텝 제도 운영
 - 대안성지순례 기능 재부 : 통역, 문화프로그램, 영상, 기고 등
 - 국내 기능 재부 : 번역, 홍보, 사무 등 볼런티어 활동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대안성지순례 참가시 지원 (피스보트 운영 사례 참고)
 - 청년 층 및 경제적 약자의 참여 확대 방안

5. 향후 구성 일정

- ① 한국ATG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및 위원 모집 (7월~8월)
- ② One Peace Party : 팔레스타인 방문 보고,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7월 27일)
- ③ 한국ATG 설명회 (한국 교계 및 관련 단체, 8월)
- ④ 한국ATG 설립 준비 심포지엄 (9월)
- ⑤ 한국ATG 창립 (10월 29일)
 - WCC 총회 기간 중, 팔레스타인과 WCC 총회 참가자와 함께
- ⑥ 국제 에큐메니컬 모금 재단 네트워크 등록

6. 기타

- ① “약속의 땅과 여호수아” (서광선) 출판

□ 전체 일정 안내

- 일시 : 2013년 5월 28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

- 대표자 간담회 [2시 ~ 2시 20분]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주간 기도회 [2시 20분 ~ 3시]

- 대안 성지순례 심포지엄 [3시 ~ 5시 30분]

사 회 : 이 윤 희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사무국장)

3:00 - 3:10 인사말 :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3:10 - 3:40 주제 발표 : <평화의 길, 대안 성지순례>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순례

▶ 최창모 (건국대학교 교수, 중동연구소 소장)

3:40 - 4:40 토론

▶ 구교형 (성서한국 사무총장)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위원장,
세계YWCA실행위원)

▶ 유시경 (NCC 국제위원, 대한성공회 신부)

▶ 최소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4:40 - 5:30 질의응답

5:30 기념 촬영

□ 참석자 명단

가한나 기독교타임즈 기자
강한별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고성기 성문밖교회 목사
고수봉 에큐메니안 기자
구교형 성서한국 사무총장
구명기 얼굴있는거래 대표
김기리 NCKK 국제팀
김민정 뉴스미션 기자
김성희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김용복 아태생명학연구원 원장
김원길 성암교회 집사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다니엘정 NCKK 인턴
명진숙 한국YWCA연합회 국장
박동욱 CTK 기자
박명국 녹수교회
박슬비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박종찬 IVF 학사
박현선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배성진 들소리신문 기자
신연식 기장총회정의평화선교부 간사
안용선 구의감리교회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오지은 복음과상황 기자
옥명호 복음과상황 편집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위원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유시경 대한성공회 신부
유영준 잠실중앙교회
이다솜 녹색연합 인턴
이상훈 대한성공회 TOPIK 부제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국장
이은영 감리교 청년
이지운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이진석 산소망교회 목사
이혜연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정인영 GOOD TV 기자
조상석 예장총회 간사
조은선 한국YWCA연합회 간사
조혜진 CBS 기자
진은지 크로스로 기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소영 여성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부장
최창모 건국대학교 교수
현명금 서울YWCA 국제협력부 위원
(가나다순, 총 47명)

□ 행사 사진 (YMCA 생명평화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더 많은 자료 보기 : YMCA 생명평화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524001637635913.1073741826.167099499992797&type=3>